

고3·중3부터 '순차 등교개학' 거론

정세균 총리 "늦어도 5월초 결정"...시기 미정 교육부 준비 본격화...모의훈련·의견수렴 등

정부가 고3·중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면서 '등교개학'은 이제 시기만 남은 분위기다. 교육계에서는 5월6일부터 11일 사이에 고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전히 등교개학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교육부에 늦어도 5월 초 등교개학 시기와 방법을 안내하고 고3·중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교육부에서는 늦어도 5월 초에는 등교시기와 방법을 국민께 알려드리도록 제반 절차를 진행하라"며 "특히 임시를 앞둔 고3·중3 학생들을 우선 고려해 순차적으로 등교시키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라"고 주문했다.

◇온라인 개학 때도 임시 급한 고3·중3부터 순차적으로 개학

앞서 정부는 다음달 2~5일 사이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는지 여부와 함께 등교개학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이후 등교개학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 총리의 이날 주문은 등교개학의 방법에 대해서는 '고3·중3부터 순차적 등교개학'으로 방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정 총리는 지난 19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5일까지로 연장하며 "등교개학은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날 발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온라인 개학 때도 지난 9일 고3·중3을 시작으로 16일 중·고교 1~2학년과 초등 4~6학년, 20일 초등 1~3학년 순으로 개학했

다. 순차적 등교개학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학생들의 밀집도를 낮춰 감염 위험도를 줄이고 통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순차적으로 개학하면 학교에서 방역·급식시스템을 점검하면서 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정부가 고3·중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개학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대학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3 개학은 6주가량 미뤄졌지만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2주 늦춰지는 데 그쳤다.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비중이 높은 수시모집을 준비하는 수험생도 불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5월6~11일?... '순차 등교' 방향은 잡혔지만 시기는 불투명

등교개학의 시기와 방법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늦어도 5월 초" "이제만 학생들이 언제부터 등교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육계에서는 등교개학의 시기는 감염병 전문가와 방역당국의 의견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싱가포르 사례에서 보듯 학교가 문을 열었다가 학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발생 동향과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교개학의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등교개학은 훨씬 보수적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8일 53명 이후 이날 191명 연속 50명 미만을 기록했다. 정부가 당초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기준으로 삼았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이다.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신규 확진자 수는 8→13→9→11→8→6→10→10→10



명'으로 9일 연속 10명 안팎을 기록했다.

교육계에서는 앞으로도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 추세를 유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면 이르면 5월6일부터 11일 사이에 고3·중3부터 등교개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월6일, 5월7일, 5월11일 등 구체적 날짜까지 거론된다.

다만 5월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점을 감안하면 바로 다음날(5월6일)부터 등교개학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등교개학 전날(5월5일)이 어린이날이어서 학교에서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등교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목소리도 교육계에서 나온다.

정 총리가 "적어도 일주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르면 5월11일 이후 고3부터 등교개학을 실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교육계에서는 다음달 3일쯤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과 등교개학이 결정된다라도 최소한 일주일 이상 준비기간을 두고 등교개학을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5월12일은 고3이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를 치르는 날이기도 하다. 지난 24일 실시한 서울시교육청 주관 3월 학평은 '재택시험'으로 '자율적'으로 치러지면서 첫 전국단위 모의고사 성격을 상실했다. 올해 고3은 두 달 가까이 자신의 전국적 위치를 확인하지 못해 수·정시 중 어디에 집중할지 입시전략을 세우는 데 혼란을 겪고 있다.

고3 학생들의 대학입시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지면 5월7~8일

쯤 등교개학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2만여곳 중 99% 이상이 기본적인 방역 준비를 마쳤다. 학교 시설을 소독하고 체온계, 손 소독제, 보건용 마스크 면 마스크 비축을 완료했다. 교실 책상 거리두기, 등교 시 발열검사 준비 등도 마쳤다.

◇등교개학 대비 학교 방역 준비, 교육계 의견수렴 본격화

교육부는 이날부터 등교 대상 학생의 자가진단 시스템을 가동하고 방역·위생물품 비축, 감염병 예방 사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29일까지 전국 초·중·고교에서 등교개학 이후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해 모의훈련도 실시한다. 모의훈련은 개학 전 학교방역 준비의 마지막 단계다.

등교개학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의견수렴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감염병 전문가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등교개학의 시기와 방법을 협의한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과도 영상회의를 열어 협의할 예정이다. 교원단체, 학부모 의견도 수렴한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등교개학은) 단순히 확진자 규모나 감염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비율 이런 것들로만 평가하기 쉽지 않다"라며 "추가적으로 교육 현장과 학교별 방역 조치를 이행할 준비가 됐는지, 연관된 지침과 (방역) 자원을 충분히 비치하고 있는지 등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광주 도심서 깊이 1m 싱크홀 발생...원인 조사 중

차량통행이 많은 광주 도심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지자체가 원인 조사에 나섰다.

2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0분쯤 광주 서구 유촌동 한 사거리에서 지름 30cm 깊이 1m의 싱크홀(땅이 꺼져 생긴 구멍)이 발생했다.

편도 2차로에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지만 다행히 차량이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즉시 라바콘과 안전 통제선을 설치하고 주변을 통제했다.

시 관계자는 "노후된 하수관로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제주공항 계류장 장비점검 30대 조업사 손가락 절단

27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계류장에서 항공지상조업사가 장비 점검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8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한진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한국공항 소속 항공지상조업사 A씨(31)가 오른쪽 손가락이 절단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대한항공, 진에어 등의 항공기 지상조업서비스를 맡는 조업사인 A씨는 이날 아침 특수안전차량(타크)에 사동이 걸리지 않아 이를 점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오전 6시53분쯤 제주시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남 도로에 주차된 차량서 남성 2명 숨진 채 발견

경기 하남시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전 4시50분께 하남시 하산곡동 한 도로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A씨(30)와 B씨(28)가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 안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두 남성 중 한 명의 유족만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나머지 한 명의 유족은 오후부터 정황 등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유족 측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차량 위치추적을 통해 숨진 이들을 발견했다.

이들이 어떤 관계이고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오인 신고 때문에...경찰차, SUV 2대 추돌

인천 서구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 추적 중 교통사고를 내 경찰관 등 5명이 다쳤다.

27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오후 8시 22분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입구 사거리에서 택시 한대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청라국제도시 입구 사거리에 신호를 위반해 택시에게 다가가던 중 2·3차로를 주행하던 투싼 2대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경찰관 2명과 투싼 운전자 A씨(37·여)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27일 0시 20분쯤 신고된 택시를 발견해 조사를 했지만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거리에서 신고된 택시를 발견한 후, 사이렌을 울리며 추적에 나서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며 "모두 보험처리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